

백화점·호텔·해변이 10분 거리...아시아 대표 쇼핑도시로 우뚝

관광형 쇼핑명소가 지역경제 희망이다

〈3〉 아시아 '쇼핑 메카'로 부상하는 부산

'부산 갈매기' '자갈치 시장' 과거 부산하면 연상되던 것들이다. 모두가 약간 촌스러운 듯한 이미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최근 부산을 대표하는 수식어는 '쇼핑 메카'다. 부산이 아시아 넘버원 쇼핑 도시 '홍콩'을 위협하는 쇼핑·관광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미래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의 성과다. 관광형 쇼핑 명소로 두각을 나타내며 폭풍 성장해온 부산이 이제는 세계 '마이스 중심도시'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천혜의 자원과 예술과 인권의 도시라는 장점에도 관광형 쇼핑과 레저·관광의 불모지로 취급받는 우리 지역이 멘토로 삼기에 충분했다.



지난 2일 부산 중구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국제시장에는 관광과 함께 쇼핑을 즐기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세계최대 백화점 등 해운대 상권 급부상 단순한 쇼핑공간서 탈피...식사·휴양도 백화점 집객효과 전통시장까지 활성화

부산이 아시아 지역 쇼핑 메카로 떠오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백화점과 면세점, 호텔·레저시설을 연계하는 쇼핑벨트 구축이다. 해운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물론 백스코를 방문한 비즈니스 관광객을 겨냥한 매력적인 쇼핑 센터들이 센텀시티 주변에 들어서 있다.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신세계센텀시티를 비롯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한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인 백스코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신세계사이언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역시 부산 인근인 기장군에, 차로 30~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외국 관광객 백화점 쇼핑 위해 부산으로 "고~고"=지난 2일 오후 기자가 찾은 백화점 신세계센텀시티 역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쇼핑객은 물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센텀시티에 위치한 이 백화점은 이곳에 오기 위해 부산을 찾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쇼핑 관광객들이 갈망하는 명소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3월 개점한 이후 부산의 랜드마크로 부상해 서면에 몰려있던 부산상권을 해운대로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다.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이곳 백화점 1층에는 유리 천장을 뚫고 국내 유일하다는 자연채광이 멋지게 드리워진 넓은 광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매장과 매장 간의 간격이 넓어 시원스럽게 느껴지며 중앙 광장은 탁 트인 프리미엄급 백화점임을 실감케 했다.

센텀시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백화점과 함께 스파랜드, 골프라인지, 영화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다. 해운대 관광객은 물론 백스코에서 업무를 마친 비즈니스 관광객들까지 원스톱으로 쇼핑과 식사, 휴양까지 즐길 수 있다. 백화점 영업을 위한 매장면적은 12만6447㎡(3만8250평)이며 스파랜드·골프 라인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4만3405㎡(1만3130평)으로 매장 면적 중 34.3%나 차지한다. 말 그대로 매출을 올리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고객뿐 아닌 지역민들이 '먹고 놀고 쉬는' 위락공간을 만든 것이다.

샤넬과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빅3와 함께 돌체앤가바나, 쉐린느, 비비안웨스트우드, 신세계슈퍼렉서(명품 구두 편집매장) 등 해외브랜드도 대거 포진해 있다.

안용준 신세계 센텀시티점 홍보팀장은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과 고객들로 주말에는 발디뭉치 없을 정도"라며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분수효과를 아직 미진하지만 고객서비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서 오이소" 전통시장도 문전성시=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센텀시티가 부산의 새로운 생활·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조성된 신세계라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중구 광복동·중앙동 일대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부상하고 있는 원도심 쇼핑 명소다. 이곳은 현재 21세기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자갈치시장 현대화와 제2롯데월드 건립 추진으로 해양친수공간과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형 쇼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국제시장은 인근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광복동 일대의 의류, 신발, 아웃도어 로드숍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인근은 가격·서비스 측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와의 차별화한 전략으로 '고정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관광형 쇼핑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최근 국제시장의 모습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전통시장은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모두 둘러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웰빙을 겸한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관광·쇼핑코스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또 용두산공원 공용주차장과 도시철도 등 편리한 교통시설과 음식점, 커피숍 등의 편의 시설도 지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게 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신태원 부산 중구 전통시장연합회장은 "자갈치문화관광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신세계센텀시티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기 위해 부산에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광형 쇼핑객을 모이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탁 트인 광장과 외부우스 피처럼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각 층은 프리미엄급 백화점의 위용을 과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축제, 광복로 트리축제 성공과 부평 강동야시장 개설 등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젠 지하상가 등에게까지 빈 점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면서 "외지 쇼핑 관광객 유치에는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같은 대형 쇼핑센터 개설도 집객효과를 높여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쇼핑 메카로 부상한 것은 개선된 부산의 교통 여건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부산~울산,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울산과 대구에서 각각 30분, 50분 만에 부산에 닿을 수 있게 했고, 또 부산~서울 KTX 시대가 되면서 서울·수도권에서는 3시간, 대전·충청권에서는 2시간 만에 부산으로 올 수 있다.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직항로가 세계 각지로 늘고 있고, 3시간 만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쾌속선은 일본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초호화 크루즈 선박이 부산항을 자주 찾는 것도 호재다. 지난 3월에만 크루즈선을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 등 1만여 명의 외국인이 중구 일대 쇼핑가와 국제시장 등지를 찾아 쇼핑과 관광을 즐겼다.

관광형 쇼핑 명소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부산시와 유동업체의 노력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부산시가 최근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인 단체인 관광인바운드 전담여행사 육성,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중국어 관광통역사 양성 등 10개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게 만다. 또 외국인인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은행 세금환급창구 또는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주도록 지정된 사후면세점 확산을 위해 ▲도심 은행에 세금 환급 창구 확대 설치 ▲후불식 부산관광카드 확대 ▲크루즈터미널 내 이동식 환급창구 개설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주민센터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기 위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4개 언어로 된 관광안내지도 10여만 부를 제작해 호텔과 관광안내소에 비치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부산=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